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이런 일을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국동포들, 그리고 이에 관심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상담을 통한 도움

- 임금을 못받았거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보상을 못 받은 경우
- 부당하게 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경우
- 예기치 않은 질병등의 건강상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 기타 한국인과의 결혼 문제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쉼터(피난처)를 통한 도움

-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는 약 30여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있어 아프거나 갈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 일요 무료진료 : 매주 일요일 한방과 양방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무료로 진료를 실시합니다.
-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자체 의료보험 공제조합을 운영
- 한글교실 : 매주 일요일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급, 중급, 고급의 한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 방글라데시 노래팀 : 한국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를 알리고자 방글라데시 노래 문화 팀 휠(Wheel)이 방글라데시의 춤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 여름수련회와 기타 축제 행사들 — 여름수련회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국의 명절에 함께 모여 문화행사화 함께 각국의 음식을 나눕니다.

☞ 한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 한국인들은 한글교실, 여름수련회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 명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인 가정에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각종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종 조사
연구와 언론 홍보작업, 정책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전화 (0342) 756-2143~4 팩스 (0342) 757-809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발행인·김해성
발행일·97. 2. 15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Phone (0342) 756-2143~4 Fax 757-8093
Hitel ID SMWH94

손에 손잡고

hand - in - hand

창간호 (1997년 2월호)



방글라데시 음악팀, 휠(Wheel)의 공연후 이사장 이해학 목사, 소장 김해성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Migrant Workers' House / Korean-Chinese House

이 자료집은 생활정보신문 (주)성남광장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식지, 손에 손잡고를 펴내며

- 창간호에 부쳐 -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1994년에 당시 대두되기 시작했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남 시청앞에 위치한 주민교회 지하에 공간을 얻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돕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간 뒤에도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작은 공간과 재원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실무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 등으로 다친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왔고 또한 한국 고적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생활이 노동 현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에 관한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에 기반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들의 경험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차원이었다기 보다도 한국인들이 우리 자신에 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1997년 새해를 맞아 더욱더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더욱 많은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일을 나누고자 작은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약하나마 서로의 느낌과 삶의 소중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책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시작칼럼	3
외국인 노동자의 글	4
현지사회 이야기	6
활동사진	8
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세요	9
상담사례	12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 소식	14
이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6
노동자교회 및 선교센터 건립	17
후원자의 글	18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 연혁	19
자원봉사자의 글	20
재미있는 이야기	21
1998년 후원자	22
후원안내	23

시작칼럼



이사장 이해학 목사
(성남 주민교회)

자기 발로 섭시다

추운 날씨가 계속 됩니다.

옛날에는 아침 뉴스만 보았는데 외국인 노동자 형제들을 만나고부터는 일기예보를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추울수록 스키장에 갈 사람들은 더욱 신이 난다는데 우리는 걱정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운 날이면 교회 지하실에서 아픈 몸으로 엉금엉금 걸어다니는 외국인 형제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산재로 인해서 손이나 손가락이 잘리거나 몸에 부상을 입어서 불편하거나 작업장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 국땅에 와서 몸도 다치고 치료받을 길도 없는데 거기다가 날씨가 추워서 우리 나라보다 더운 지방에서 온 형제들은 여간 심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에 때아닌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전국이 어수선 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한참 기대했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청원했지만 언제 처리가 될런지.....

지금은 외국인 노동 형제들을 보기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큰

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형제들이여 실망하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똑똑히 보시오. 우리 정부의 웅졸한 법개정이 어떻게 밀려 가는지를. 역사는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그 투쟁은 몇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노동자 일지라도 나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의식을 의식화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생명적인 죄악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사랑이요, 정의요, 평화입니다. 생명을 지향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집을 거쳐서 외국에 돌아간 형제들의 건강한 소식들을 접할때 마다 우리의 보람이 샘 솟습니다. 그것보다도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조국, 방글라데시

사마즈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스물 두살까
지 그곳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젊은이
입니다. 97년이 되면 제가 한국에 온지도 5년
이 됩니다. 처음 한국의 김포 공항에 내려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위에 놀라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다니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 주전에 일하다가 다쳐서 경기도 김포의
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친
구를 도와주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자원봉사
자와 함께 서울을 통과해 김포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강을 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때
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남의 몇몇 지역
에서만 지내다보니 정말 오랫동안 강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강은 햇빛을 받아 곳곳에 작은 다이아몬드
를 뿌려놓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저는 순간
적으로 오랫동안 잊고있던, 아니 잊으려고 의
식적으로 노력하던 제가 살던 집 앞을 흐르던
아름다운 강을 보았고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영화보기를 좋아하던
무척 수준은 소년이었던 저는 집앞을
흐르던 아름다운 강에서 자주 수영을 하며 놀
곤 했습니다. 집에는 많은 식구들이 있었고 막
내였던 저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
니다. 대학에 가서 문학을 선택했고 아름다운
감수성과 진지한 친구들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 러나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상황이 저를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테러와
정치인들의 부패입니다. 정부와 정당은 돈과
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많은 지지자
를 만들려 하고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고 돈
을 벌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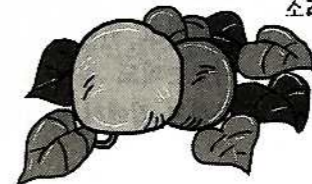
정치조직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과 총을
지원을 받아 그 총으로 돈도 뺏고 사람을 죽이
기도 하지만 이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집
권당이 지원하는 조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
하고, 특히 자식을 대학을 보낸 부모님들은 항
상 걱정을 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모든 상황이 옳
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도우려고 애
썼으나 어느날 바로 제 앞에서 제가 가장 사랑
하던 두 친구가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저는 대학교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 국에서 저는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
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했고 7개월씩 월급을 받지 못한 일도, 한국
인에 의한 폭행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능하
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5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열
과 감수성을 가진 어린 젊은이는 더이상 찾아
볼수 없고, 쉽게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은 과묵
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고향집에
갑자기 돌아 간다면 어머니는 나를 알아 보실
까요?



요 즘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들어 오
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최근의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
년에 한 두번씩 온 나라를 휩쓰는 홍수와 태풍
도 여전히하고 정치적 데모와 명문 대학을 졸업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높은 실업률도 여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이상한 것은 그로록 생각 하지 않
으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여기 한국에
서의 삶이 몸에 익고 아는 사람들이 생겨도 가
꿈은 정말 미칠 것 같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 글라데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조
리와 가난, 그리고 제게 물 수 있는 신
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앞에 흐르던 그 강
과, 자주 걸곤 하던 하얀 모래가 깔린 해변, 그
곳 사람들이 가진 천진한 미소,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가득찬 시장거리, 그리고 그들
의 냄새와 언어가 그리웁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리운 것은 생의 아름다움과 사
람들의 사랑에 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맑
은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 과거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리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어찌할 것인가! 무너져 내리는 조선족 동포사회



김해성(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소장
산자교회 목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사기사건 진상 조사차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96년 12월 21일 밤 11시가 넘어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의 한 호텔 로비에서 상담을 막 마치고 나서던 우리 일행앞에 대성 통곡을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울먹거리며 꼬깃꼬깃한 알아 보기 힘든 진술서를 내밀었다. 그 내용은 자기의 남동생이 부인을 잃고 딸 셋을 힘들게 키웠는데 어느 날 큰 조카딸(21세)이 한국인 브로커와 31세된 한국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하여, 수속비등 3만여 위안(한국돈 300만원)을 급전을 내어 수속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20여일을

동거하며 수속을 마쳤을 즈음 남편 될 사람이 서울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위독하니 한국에 잠시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떠난 뒤 아무리 전화와 편지를 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줄 깨달은 조카 딸은 정신이상이 되었고, 또 다시 돈을 꾸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한달째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동원되어 백방으로 찾던 중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으로 쓰러져 식음을 전폐하고 귀에서는 고름이 계속 흘러 나오는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어린 것이 몸주고 돈주고 정까지 들었는데 그토록 꿈꾸었던 한국행이 좌절되니 그럴 수 밖에 더 있겠느냐?”며 호느꼈다.

우리조사단이 10일 동안 중국의 조선족 동포 밀집 6개지역에

서 금번에 접수한 사기사건이 721건에 피해자가 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해서 초청사기, 취업사기, 산업기술 연수생 모집사기, 비자사기, 결혼사기, 유학사기, 합작투자사기, 심지어는 밀입국 사기,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기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집을 팔거나 5부나 7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꾸어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되고 2년이면 배로 불어 나며, 연말에 빚을 갚지 못하면 감금, 폭행등 가혹행위를 당하기에 집을 떠나 피신을 하는 이들도 다수라고 한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의 그리운 고국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슴없이 ‘원자폭탄이 있으면 남한 땅에 터트려 버리고 싶다’, ‘남북한 전쟁이라도 나면

동포를 동포로 대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사기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하도록
해야

북조선을 지원해서 남한을 쓸어 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문제들과 계속되는 사기 사건들, 그리고 한국내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인간적인 대우등이

속속들이 전파되면서 북한에서는 ‘중국 동포들을 보아라, 저렇게들 당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짓밟힌다’는 선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갈이다.

이제 중국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그냥 바라만 보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왔음을 반성하고 동포를 동포로 대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사기사건의 진상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대량 사기사건의 진원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6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하기 직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캠페인

진
사
동
활

1996년 12월 외국인 노동자의 집 실무진들이 현지 방문 여행중 네팔의 수도 카르만두에서 네팔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있던 BJ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한국에서 번 돈으로 세운 Hotel Asiana앞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세요



나시르 우딘 (방글라데쉬, 26살, 남)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나 치료도 해주지 않고 내쫓은 사장님.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나 병원비가 없어 부러진 손가락만 바라보며 눈물만 글썽이는 나시르.

나시르 우딘씨의 경우

94년 8월에 입국한 나시르 우딘씨는 김포에 위치한 신광기업에서 근무하던중 프레스 기계의 부품을 갈아끼우다가 빨리빨리하라는 사모님의 성화에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발의 페달을 잘못 밟아 왼손의 손가락이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네게나 으깨지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나시르씨는 김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시 사업주가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50만원으로는 손가락 골절 수술 및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나시르씨를 병원에 맡겨놓은 채 병원비에 대한 말 한마디 없는것은 물론이고 2달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오갈곳 없는 환자를 무조건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업주를 만나 <회사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 적용하여 산재 처리 하는것이 어떤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다짜고짜 "니가 뭘데 참견하느냐? 병원비를 줄 사람도 나고 안줘도 내문제니 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이놈은 불법체류자니까 병원에서 퇴원시키면 내가 신고해서 당장에 쫓아버리겠다"면서 있는대로 소리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자수가 5인 이상되

어 소급적용으로 산재 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협조를 의뢰해 본 결과, 이미 그 공장은 3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여 상습 악덕 체납자로 주목되었고 산재보험은 이미 소멸되었으며, 현재 근로자수도 5인이 안되어 산재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우기 나시르씨의 손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손가락이 심하게 구부러졌으며 부러진 뼈도 아물지 못한채로 긴급히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병원비가 없어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손가락이 심하게 굳어져 있어 물리치료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업주에게 나시르씨가 어떻

게 치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해 보았으나 사업주는 “나는 병원비 델 돈이 한푼도 없으니 외국인만 돕지 말고 우리 좀 도우라”며 오히려 큰소리만 칠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시르씨는 하루빨리 구부러진 손가락이 바로 펴질 수 있고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200여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숨의 나날을 보내면서 “장애 보상금은 고사하고 손가락만이라도 좀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일 뿐입니다. 나시르씨의 병원비를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암 꾸말 구릉씨의 경우

암씨는 솜뭉치를 나르는 일을 하던 중 솜뭉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그후 암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중 복부에 이상한 물체가 잡힌다고 해서 서울 혜민병원으로 옮겨 내시경 촬영을 해 본 결과 췌장성 췌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하루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사업주는 더럭 겁을 먹고 퇴원을 시켜버렸습니다. 배의 심한 통증과 고열 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 우리는 부랴부랴 인하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켜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두 달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면서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호출에 몇번을 달려가 밤을 세우곤 하였으나 다행히도 그는 차차 기력을 회복하고 입원한지 다섯 달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사업주는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공장문을 닫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고, 부러진 다리가 아직 채 아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찾아 다리에 대한 산재 신청을 위해 동분서주 해 보았으나 사업주



암 꾸말 구릉(42세, 네팔)

산재로 인한 다리 골절상으로 입원중, 췌장성 췌장염에 걸려 1달간의 중환자 상태에 있다가 가까스로 소생하여 삶의 기쁨을 얻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 어린 자식만 남겨둔 채 그동안 보내준 돈을 모두 가지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부인. 이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울부짖는 네팔인 암 꾸말씨.

의 행방은 묘연할 뿐이었습니다. 더우기 5개월동안 1,300만원(성남 인하병원에서 50%이상을 절감해준 금액임)이나 되는 병원비를, 모금을 통해 일부는 지급하고 나머지 500여만원은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씨는 자신이 다시 일해서라도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위해 노력해준 병원에게 진료비만큼은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골절되어 심하게 저는 다리로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는 다리에 있는 핀제거 수술만 하면 하루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곤 했으나, 최근 그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어린아이를 남겨놓은 채 도망간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에서 보낸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도망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시울이 별개지도록 울기만 할 뿐입니다. 그는 일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불구가 되었으나 그 역시 보상은 커녕 아직 다리에 있는 핀조차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부인마저 떠나버려 마음마저 불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될 뿐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눈물을 흘릴때면 일하는 우리들의 콧등까지 찡해옵니다.

암씨의 마음에 평정을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씨의 마음에 평정을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씨의 마음에 평정을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담 사례

백혈병 말기 상태에서 고통받다가 외국인노동자의 집 도움으로 출국한 준토

방 글라데시인 준토씨(28세)는 95년부터 계속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1년여 정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자 본 상담소에 찾아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본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진료를 도와준 이민상 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하던 중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성남 인하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게하였다. 그 결과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생의 길'이라는 결과에 준토씨는 "죽더라도 가족품에 돌아가서 죽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으며 우리도 하루 빨리 출국시켜 가족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후 준토씨의 출국 수속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중에 준토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급히 현대 중앙병원 백혈병동에 입원시켰으나 당시 준토씨의 상황은 계속된 뇌출혈로 사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2-3일후 다행히

출혈이 멈추고 혈소판, 수혈 등의 조치로 백혈구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위급한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지만 망막부분의 출혈로 인해 시력이 거의 상실되고 다리도 심하게 절개된 상태였다.

당시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현재 백혈구의 수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높으며, 귀국하려면 하루 빨리 출국해야지 이리다가 다시 출혈이 일어나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병원측에서는 원활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혈소판, 헤모글로빈 등의 혈액을 투여하여 다행히도 준토씨의 건강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었으나, 문제는 12일동안 입원한 기간의 병원비 700만원에 대한 지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현대 중앙병원의 아산재단 무료진료팀에 의뢰하여 무료진료를 부탁하였으나 희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무료진료의 도움을 받지 못해 준토씨의 출국의 길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당장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구할수도 없

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병원에 있는 다 해도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오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 장례식을 치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준토씨의 상황은 혼자서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앉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의사1명을 동승해야만 출국할 수 있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못해 결국 준토씨의 출국을 도울 친구 한명을 찾아서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황이었다.

한국에 온지 3년 정도 되는 준토씨는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병원비로 많은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준토씨는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런지에 대한 걱정보다도 병원비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대사관측의 간절한 부탁으로 중앙병원에서는 그동안 수혈로 든 비용대신 현혈 증서 50장과 200만원으로 병원비를 감해주었고, 준토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롯데복지재단에서는 200만원의 병원비를 선뜻 지원해 주어 준토씨는 곧 출국할 수 있었다.

고국의 그리운 부모님 품에 안긴 준토씨는 공항에서 대기해 놓은 엠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결국 그토록 그리던 가족의 품에 안긴지 20일도 채 되지 못해 젊은날의 많은 꿈과 소망을 접어둔채 눈을 감고 말았다.

그후 가족에게서 아들의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소식에 가슴이 메어온다.

마음이 따뜻하고 능력있는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는 대학생, 일반인 등 20여명이 의료 진료 (양방과 한방), 컴퓨터 관련 (입력과 인터넷에 자료 올리기), 행사 관련 (캠프 준비와 동참), 프로그램관련 (한글학교, 컴퓨터 반), 언어 관련 (번역과 통역) 기타 음식준비나 단순 사무보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있고 1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할 마음이 있는 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정유경에게 연락하시거나 메모를 남겨 주세요.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외국인들과 친구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 회원에 준하는 혜택(P.23 참조)을 누리시게 됩니다.

1996년도에 수고해 주셨던 자원봉사자

이종현 김도균 이현우 이성동 김미라 엄희경 김태준 김종선
엄주용 홍경두 이동렬 김기환 조동복 이유신 윤혜원 김홍인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 소식

외국인노동자의 집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방문

지난 12월 8일부터 20일간 외국인 노동자의 집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5명은 인도를 거쳐 네팔, 방글라데시를 돌아

보고 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크게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사회를 좀더 잘 이해하고자 하

는 것이었고, 작게는 한국에서 사망한 방글라데시인 두 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

(방문자: 양혜우, 이정원, 정유경, 김주영, 김도균)

김해성 목사

중국 동포 사기사건 조사차 중국방문

김해성 목사(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재중국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중국방문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등지를 돌아보고 사기피해 조선족의 피해자 접수를 받

았다. 이번 피해사건 조사 기간중에는 총 721건의 피해사제가 접수되었으며, 지정기탁된 성금과 1차 모금된 성금 총 1천612만원중 1천90만원을 현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

새로운 실무자 신흥주씨와 정유경씨



중국 동포 담당 신흥주씨 국제 연대 업무 담당 정유경씨

1997년 1월 1일부터 본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마치고 다양한 노동 현장 경험을 쌓아온 신흥주씨(전도사)와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미국 콜롬비아대 사회사업학

과 대학원을 졸업한 정유경씨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신흥주씨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더욱 비중있게 다룰 중국 동포 문제를 전담하고 피난처(셸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할 것이며, 정유경씨는 그동

안 힘이 닿지 못했던 각종 행정, 조사연구, 그리고 향후 중요해질 국제연대 업무에 힘쓸 예정이다. ■

중국 동포 초청공연 우리는 하나

1월5일 200여명의 중국 동포들과 외국인 노동자의 집 식구들은 에버랜드에서 중국 동포

초청공연에 초대되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MBC라디오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 공동 주최했고, 에버랜드가 협찬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서로의 풍성한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

인권10대 소식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 및 김해성 목사, 양혜우 국장 구속

인권운동 사랑방은 인권 하루 소식에 '96인권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 청

원과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의 구속이었다. 한편 96년 인권 침해

자로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박일홍 전 경찰청장, 안기부 등이, 인권 옹호자로는 김해성 목사, 추미애 의원, 박시환 판사, 이종걸, 이찬진 변호사 등이 선정되었다. ■

외국인노동자제도개선을 위한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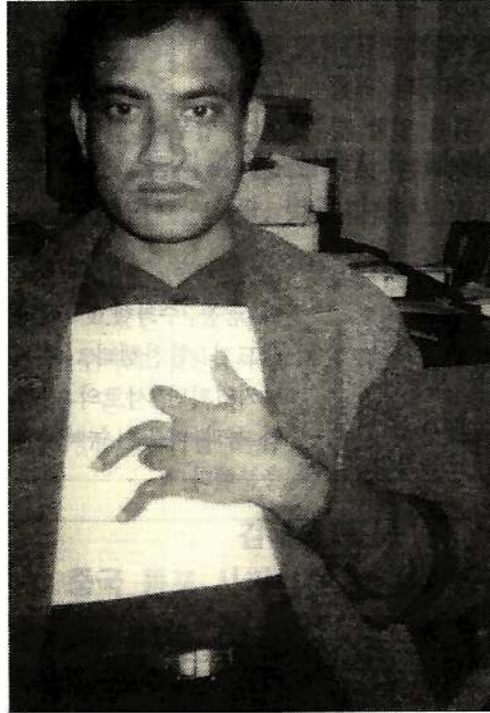
— 손에 손잡고 —

지난 96년 12월 1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는 중국 동포들과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관심있는 한국인 3000여 명이 모여서 외국인 노동자 및 중국 동포의 불

평등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와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 서로돕

기회 공동 주관과 각 시민 종교단체의 주최로 이루어진 한마당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참가자들은 진정한 인간애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속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



방글라데시인 라시드(29세)씨
프레스 기계에 의해 왼손 두째, 세째,
네째, 다섯째 마디가 절단되었으며 세
째, 다섯째 손가락은 접합술의 실패로
인해 심하게 구부러짐



이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조선족 동포
류정기 할아버지(62세)

친지방문차 한국에 왔다가 여비
나 벌어가려고 취직했던 공장에서
옷걸이 20개를 뿔던중 오른손이 으
깨지는 부상을 당했고 치료를 제대
로 받지못해 손가락들이 썩는 고통
을 겪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손가락
을 모두 절단하게 되었고 산재보상
이 되지않아 콩팥을 밀매하겠다고
나서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귀국하였음.



외국인 노동자교회 및 선교센터를 건립합니다.

아브라함은 집 앞 을 지나는 나그네 세사람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여 송아지
를 잡아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 주었다. (창세기 18:1-19)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길가는 나그네 두명을 영접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하룻밤 머물고 가도록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집을 둘러
싸고 “그 남자와 상관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롯은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호소
하기를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
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일도 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며 문을 부수려 하자 두 사람이 소돔 남자들을 쳐서 눈을 여둑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
하게 하였다. 그리고 두사람은 롯의 가족을 성에서 끌어 낸 후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피
하도록 하였다. 결국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다. (창세기 19:1-29)

길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롯이 길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목숨을 건지게 된 이유입니다. 나그네를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야 이해가 되어 지지만 차마 자기의 두 딸을 내어 주면서까지 나그네를 보호해야 만 하
는가? 하는 의문이 채 가지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20만명이 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라고 하는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호
소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이 분명합
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들로서 강도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쉬기도 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키워 나갈 <외국인 노동자 교회당>건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 신학훈련을 통해 목회자로서 파송된다면 해외
선교의 획기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교회당>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외국인 노동자교회 (임시당회장 김해성 목사)
성남 (0342) 756-2143-4 팩스 (0342) 757-8093
구좌 외환은행 102-75-05411-4 (예금주 김해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외국인 노동자 교회당 건립 추진위원회(가칭)

후원자의 글

존경하는 목사님께 +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잘살아 보기위해 가족을 떠나 떠나며 한국까지 와서 고생하 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각나서 쌀을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쌀은 이번 성탄절날 교회에서 한 가마 보내주신 것인데 그 중 반가마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어렵 게 살아 왔기에 쌀 한가마 사놓고 먹어 본 적이 없어 쌀 한가마니가 생기자 갑 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거면 내 일년 양식은 되겠구나 하고 생 각하다보니 목사님과 노동자들이 생각나서 그 중 반을 보내 드립니다. 거기다가 조금 붙여서 묵은 쌀도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 쌀도 작년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서 받은 것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4개월동안 병원에 있어서 그동안 먹지 않은 쌀입니다. 묵은 쌀을 보내려고 하니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 어 몇번이고 망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식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모 습이 생각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보내드리니 오해말고 받아 주시기 바 랍니다. 묵은 쌀은 정성껏 양지에 말렸으니 깨끗합니다. 약도 필요할 것 같아 좀 보내드립니다. 연고는 타박상이나 허리 아픈 사람에게 마사지하는 식으로 발 라 주시고, 찜질에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쓰던 핫팩도 깨끗이 해서 보내 드립니 다. 허리 다치거나 맞아서 온 외국인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써 주세요. 목사님, 정말 적지만 돈 2만원도 편지속에 보내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 약 5개월 동안이나 폐지를 모았는데 겨우 2만원밖에 되지 않는군요. 목사님, 작은 것들이지만 받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목사님도 힘 내세요. 올해는 꼭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군산에서 변점순 집사 올림

◆ 변점순 집사는 남편없이 어린 세명의 자녀를 힘들게 키우던 중 폐결핵에 걸렸고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어 린 두 자녀를 외국에 입양을 시키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연혁

1994~1996

1994.	4. 10	외국인 노동자의 집 창립식
94.	5. 15	한글교실 1기 개설
94.	6. 5	문화기행(옛 조선왕조의 왕릉을 찾아)
94.	7. 29	제1회 여름수련회(서해안 안면도, 1박2일)
94.	10. 2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돕기 위한 헌옷과 음식 바자회
94.	10. 10	방글라데시 노래팀 휠(Wheel)구성
1995.	1. 20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문제와 현황에 대한 공청회
95.	4. 23	외국인 노동자의 집 창립 1주년 기념행사
95.	7. 9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결성
95.	7. 31	제2회 여름수련회(동해안 동호 해수욕장, 3박4일)
95.	10. 25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95.	12. 14	KNCC 인권위원회로 부터 95년 올해의 인권상 수상
1996.	3. 31	청년 한의사회 한방 무료 진료소 개소
96.	5. 26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가두 서명운동 (명동성당)
96.	6. 3	서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상담소 난입과 네팔인 연행.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 김해성 목사, 양혜우 사무국장 구속
96.	7. 16	김해성 목사, 양혜우 사무국장 석방
96.	8. 9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국제 세미나 (전 지구적 구조에 대항하는 이주 노동자)
96.	12. 1	외국인 노동자 문화 한마당 '손에 손잡고' 행사
96.	12. 14	외국인 노동자 연말행사 개최



김주영

■ 새란한의원 원장
 ■ 참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 성남진료소 소장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인연을 맺은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한의사인 저는 지방에 계시는 모 회원에게 소개를 받아 진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힘들면서도 보람된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던 저로서는 말로만 듣던 외국인들 직접 진료할때마다 불법 체류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 정돈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엄청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와서 철야작업에 공휴일까지 반납해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남은 것은 병든 몸에 돈 몇 푼, 그리고 단속에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람사는 세상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5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고국땅에 돌아가 자기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희들의 진료에 효과를 본 후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는 그들속에서 저는 인류애를 느꼈습니다.

물론 어떤 환자의 아픈곳을 알기 위해 3명의 통역을 거쳐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실하기만 합니다. 요즘 저는 일요일이 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진료활동을 도와주시는 김해성 목사님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파키스탄인 이브라힘 칸이 손가락이 잘려서 찾아왔다. 나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떠들떠들 영어로 간신히 상담을 마쳤을 무렵, 이브라힘 칸이 분명한 한국말로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는 깁듯한 존재말에 확 끼쳐오는 황량감이란.....

돼지빵

중국 동포들과 만두를 빚어 먹는데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문을 열었다. 함께 먹자고 제안을 하니 "돼지고기가 들어있느냐?"고 물었고 당연히 들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그 다음부터 만두를 보려면 '우린 돼지빵 안먹어!' (이승삼권은 돼지고기를 먹진 않기에 빚어진 일)

SEX & GENDER

상당카드란에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항목이 있다. Name, Address, Nationality, Sex, Age 등..... 어느날 방문한 방글라데시 아저씨. 빈 항목 하나하나를 잘 써 나가더니 SEX 칸에서 손을 멈추더니 인상을 찌푸리고는 옆은 5번이라고 쓴다. 아이고, SEX는 그 말이 아닌데..... 우리 상담실은 그 후 SEX를 GENDER라는 말로 바꾸었다.

털라 머리카락

너무 슬픈 영국을 보고 상담소로 들어온 한 방글라데시인 무슨일로 왔느냐고 물으니 웅뜯뜯 "누나 딸에서 머리카락이 나오" — 젊은 외국인들이 머리카락과 털이라는 말을 구별 못하는데서 왔던 우스운 이야기.....

1996년 한해 동안 후원해 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 인

이해학 이상락 황애순 김중진 고원국 강대식 서경례 배홍만 권대경 김종월
이은화 김재환 박현옥 이재명 이종태 박현선 윤남숙 이은화 김재환 박현옥
박상환 장우형 조유현 문광호 김철수 남혜원 김순자 천병수 원윤연 박 훈
유영희 이창은 남구현

단 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박종화총무, 선교국장 성해용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식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노회장 정휘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 주민교회(이해학 목사) 독일 복음교회(송병구 목사) 용인교회(장광섭 목사) 양지교회(정연진 목사) 향린교회(홍근수 목사) 향린교회(의료전교부, 인권위원회, 여전도회) 한신교회(이중표 목사) 신영교회(이성울 목사) 천호동교회(홍순원 목사) 감복동교회(김재용 목사) 낙생교회(서봉진 목사) 안성제일교회(고정열 목사) 무진교회(강신석 목사) 동남교회(정하천 목사) 평강교회(전종하 목사) 갈보리교회(임남수 목사) 경동교회(이동준 목사) 동수원교회(김중성 목사) 가은교회(이상호 목사) 수도교회 남신도회 산자교회 남신도회 영지교회(우희문 목사) 송암교회(박승화 목사) 양평교회(이영무 목사) 진달래교회(이병창 목사) 교백교회(한상열 목사) 온누리교회(이은우 목사) 동부선린교회(정휘탁 목사) 파고다로타리클럽 정동로타리클럽 바인가르텐교회(슈나이스 목사) Evangelisches Missionswerk 남산와이즈맨 클럽

물 품 지원

한인수 김영자 영동세브란스 신우회 조성준의원 관악교회(문성일 목사) 한국기독교컴퓨터센터(김거성 목사)봉동교회(김금용 목사) 코트라



후원안내

후원자자 되시면 다음의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 월 소식지 — 외국인 노동자의 집 월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의 만남의 기회 제공 — 여름 수련회, 각종 문화행사, 연말행사 등에초대됩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친구되기 — 외국인 노동자와 일대일로 연결하여 서로 초대하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 ♣ 외국인 노동자와 관계있는 나라(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중국 등)를 방문하는 경우 실질적 여행정보와 현지인 친구와의 만남 주선 등

후원방법

1. 회 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1년간의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고, 다음의 금액 중 편한 방법으로 동봉된 지로용지, 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해 주십시오.

* 특히 자동이체는 매월 은행에 가시는 불편이 없고 정기적으로 정한 기일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구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회원: 월 5,000원 월 10,000원 월 30,000원
연회원: 년 100,000원 년 300,000원 년 500,000원 이상

농 협 : 169-01-293391 (예금주 : 김혜성)
외 환 : 102-75-04146-2 (예금주 : 이해학)

2. 물품 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집 쉼터에는 30여명이 넘는 산재 환자나 질병을 치료하는 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쌀, 감자, 양파 등의 부식
- 전기장판, 비누 등의 생활 용품